

사상적 연원과 시대적 흐름을 통해 본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중화민족주의 강화

조 봉 래 (인천대학교)
(maozd@inu.ac.kr)



국문요약

최근 한중관계는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매우 경색되어 있다. 또한 시진핑정부는 중화민족주의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중화민족주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몇 가지 연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전통의 중화사상으로 일종의 문화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민족관념인데 이는 종족주의와 다른 것이다. 두 번째는 서양문명을 받아들이며 형성된 근대적 민족주의 관념이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위기는 중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구망'의 길을 모색하게 했다. 서양의 '사회진화론'을 널리 받아들여 근대적인 민족관념을 형성했다. 세 번째는 쑨원의 '삼민주의'이다. 신해혁명 당시 쑨원의 주요목적은 '멸만홍한'이었지만 신해혁명이 끝난 후 소수민족까지 모두 포함하는 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현대 '중화민족'의 개념은 쑨원이 정립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넷째, 마오쩌둥의 '민족해방사상'이다. 마오쩌둥은 근대적 민족관념을 계승·발전 시켰는데 그는 중화민족은 바로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의 주체라고 생각했다. 항일전쟁 후 그의 '민족해방사상'은 중국혁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화민족'은 국가 발전의 동력과 주체가 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경제는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국제적인 지위는 올라갔지만 새로운 모순들도 생겨났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를 강조해서 인민들을 단결시킴으로써 모순을 해결하

고자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은 ‘중국몽’이라는 지도사상과 중요한 집정이념을 제출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화민족의 근대 이후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시진핑정부는 중화민족주의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

주제어 : 중화사상, 민족주의, 시진핑, 중국몽, 중국공산당

I. 서론

2016년 7월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기습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고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양국의 관계는 수교 이후 가장 경색되어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비단 한중 두 나라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 등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들의 각각의 이해가 상충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사국들끼리의 국제적 역학관계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맞물려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2008년에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했고, 특히 2015년 9월 3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초청 받았다. 천안문 망루에서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지켜보는 장면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한중 FTA 체결이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입하는 등 사드배치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기 전까지는 양국관계는 발전 일로였다. 그러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은 곧바로 한국경제를 압박하는 형태로 보복을 가해왔고 그 압박의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강도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로 인해 역으로 중국에 대한 국내의 여론 역시 악화되었다. 겉으로만 본다면 한국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하여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를 자국의 영토에 배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 운운하며 강력히 제재하고 나서는 것은 국권 침해로 보일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사회에서 대두 되었던 소위 ‘중국위협론’이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했고 최근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해역을 두고 잦은 마찰을 빚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재조명되면서 이른바 ‘중화패권주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중화패권주의라는 말은 중국이 구 소련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패권주의라는 말과 중국의 자긍심이 포함된 중화라는 말이 결합된 것으로 그 용어 자체가 매우 아이러니하다.¹⁾ 그런데 이 중화패권주의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 것은 비단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일이 아니다. 21세기 들어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들어선 이후 1980년대에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했던 이른바 ‘28자(字) 대외관계 지도방침’ 중에서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희(韜光養晦)’에 더 이상은 연연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은 한다는 의미의 ‘유소작위(有所作爲)’ 쪽으로 더욱 무게를 실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 무렵부터 중국은 ‘대국굴기(大國屈起)’의 꿈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포석을 놓았다. 한국의 경우 동북공정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6년을 전후하여 고구려사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화패권주의’라는 말이 급속히 확산되어 쓰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화민족주의’ 역시 그것을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화패권주의의 함의가 상당부분 녹아있다. 실제로 중화민족주의라는 키워드로 ‘DBpia’에서 검색된 국내학술논문은 중국의 대외관계 및 중국 국내의 소수민족과 관련된 주제를 모두 포함하여 52편인데 동북공정이 한참 이슈가 되었던 2006년과 후진타오의 집권 2기가 마무리 되는 2012년에 다수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중화민족주의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시진핑의 등장을 전후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일 주제의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 한중 두 나라 간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이 주제는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중화민족주의’라는 용어들과 함께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군의 학자들이나 주류 언론들은 이 문제를 다룰 때 주로 공격성이나 배타성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과장하여 너무 단순하게 중국위협론을 일반화 시킨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바라보기에 앞서 현상만을 분석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나 대응은 문제를

1) ‘패권(霸權)’이라고 할 때의 ‘패(霸)’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맹자(孟子)가 왕도정치(王道政治)에 반대되는 의미로 패도(霸道)라는 말을 썼다. 즉 인의(仁義)를 저버린 채 무력으로 천하를 지배하는 것을 패도정치라고 하며 패권이란 바로 그러한 자의 권력이라는 뜻이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이 용어를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비난한 1968년 8월 신화사(新華社) 보도에서였다. 그후 미국과의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영문표기 헤게모니(hegemony)를 중국신문이 패권주의로 표기하였다.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현대중국이나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국제정치, 외교, 경제, 무역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유독 중화민족주의라는 이 주제만큼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치사상, 문화 등 인문과학 영역의 연구들도 비교적 많이 있다. 철학·사상을 전공하는 필자가 볼 때 중화민족주의는 시대별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중 두 나라 사이에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사회과학자들에게 미루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중화민족주의와 관련된 인문학적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주로 사상적인 부분에서 정리 고찰하여 보다 종합적인 층위에서 중화민족주의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렇게 구성된 중화민족주의가 시진핑 정부 시대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시진핑 정부는 또 이 중화민족주의를 왜 강화하려고 하는지를 가늠해 봄으로써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및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 조금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는 시진핑 시대의 ‘중화민족주의’가 후진타오 시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실 정책의 계승성과 집단성이 극도로 강조되는 중국의 국가정책 결정 시스템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대(前代) 지도부가 결정한 정책을 계승한 후속 정부가 부정해 뒤집는 경우도 거의 없다(김태만 2015, 21).

그렇지만 시진핑 정부 들어 수차례 강조했던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화민족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또한 최근의 중국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면서 이 중화민족주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 정도는 우리가 주시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최근 중국의 대외 관계와 세계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²⁾이다. 이 역시 중국 역사상 해외로의 팽창이 가장 활발했던 한·당(漢·唐) 시대에 개척된 실크로드와 해상 무역로를 재건하여 중국이 그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또한 각자의 이익이 상충하는

2) 이른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계획(建設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의 줄임말로 시진핑이 2013년 9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를 방문 하면서 제시했고 꾸준히 주목을 끌다가 2015년 양회 종료 직후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부분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호들이 중국이 공격적인 대외 팽창을 기도하는 방증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수단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II. 현대 중화민족주의 형성의 사상적 · 시대적 연원

중국은 역사가 오래된 국가인 만큼 그들의 정체성의 형성도 매우 일찍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현대 시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족적인 정체성 형성이 짧은 시간에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중화민족주의 형성의 사상적 연원을 전통과 근현대로 분리하여 살펴보고 특히 근현대는 서구문명의 수용과 새로운 정체(政體)의 구상, 사회주의 건설 등으로 나누어 주로 민족적 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1. 전통적 중화사상

많은 학자들이 현대 중화민족주의 태생의 기원으로 ‘중화사상’ 혹은 ‘중화주의’라는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관(天下觀)을 든다. 서양문물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뜨고 근대 민족주의 관점이 생기기 전까지 중국인이 가지고 있던 자문화 중심적인 세계관을 ‘중화사상’이라고 한다.

평요우란(馮友蘭 1985, 213)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문화중심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진(秦)나라 이전부터 중국인은 ‘중국’ 또는 ‘화하(華夏)’와 ‘이적(夷狄)’을 엄밀히 구분하여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구분은 문화적으로 강조된 것이지 종족적으로 강조된 것이 아니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이 세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생령(生靈)이 있다고 생각하여 왔는데, 이것은 즉 중국인(華夏), 오랑캐(夷狄) 그리고 금수(禽獸)였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가장 교화가 잘 되었고 그 다음 오랑캐이며 금수는 전혀 교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인들이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의 중간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문명이 주변의 문명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주문화(定住文

化)에 기반을 둔 오래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유목민족들에 비해 문명을 축적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며 주변에 그들과 경쟁할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있을 것이다. 또한 종족연합국가였던 주(周)나라가 이미 기원전 7세기경에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했던 봉건제가 무너져 각 제후국들이 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종족의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진(秦)과 한(漢)이라는 통일 국가가 형성되면서 중국 전체가 내부적으로는 단일한 문화를 일찍 향유하게 된 점도 문화중심적 중화사상이 형성되는 이유였을 것이다. 이후 간혹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문화가 중국의 학문이나 문화를 해체 할 만큼 위력적이지 않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나 위협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자문화 중심적인 우월감은 확신에 가까웠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조봉래 2011, 520-521).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화주의가 문화우월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지만 중화사상은 문화적 민족주의가 주를 이룬다는 것일 뿐 그 외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단언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안외순(2004, 85-86)은 ‘중화’의 자의(字意)를 풀어서 이 개념에는 지리적 요소,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종족적 요소도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중(中)’에는 ‘천하세계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요소가, ‘화(華)’에는 ‘최고도의 문화 혹은 빛나는 상태’라는 문화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리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말이 중화라는 것이다. 또한 ‘화(華)’는 ‘하(夏)’와 동의어인데 이는 중국 고대 왕조문명의 시작되는 ‘하(夏) 종족’과 그들의 터전인 ‘하(夏)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중(中)’과 연결시키면 문명의 중심은 ‘화족(華族)’, 곧 ‘하족(夏族)’이라는 종족 중심주의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세계관이 탄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사상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가 절대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화사상을 현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의 근원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희교(2006, 307)는 2000년대 중반 중국에서 나타나는 애국주의적 현상들을 단순히 중화주의의 부활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중국 역사의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중화사상의 두 가지 핵심을 화이사상과 조공책봉체제(朝貢冊封體制)로 보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화이사상을 말하지도 않고 조공책봉체제와 같은 국가 간 위계질서를 가진 중국 중심의 세계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는 애국주의를 전통적 의미의 중화주의와 등치시킬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중화주의적 전통이 현대까지 정서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를 선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서적인 흔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화이사상이 그대로 남아서 중국의 주변국들을 오랑캐라고 간주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들의 정서 속에서 문화적 선민의식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세계 어느 곳으로 이주해 살더라도 그 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화교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점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화(華)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夷)의 문화를 익힐 필요는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과 같이 노골적이고 형식적인 조공책봉체제는 아닐지라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회복하여 역내 국가들 간에 일종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사회진화론과 중국의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의 형성

전통적 중화사상은 1840년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최초로 문명사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부터는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그 자리에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사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민족주의도 근대의 산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표적으로 안쏘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91, 9-11)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발전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16세기 이후 어떠한 단일 경제 공동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을 근대 민족국가가 생겨나게 된 원인으로 본다. 그렇게 나누어진 서양의 근대 민족국가들은 자원과 시장을 놓고 식민지 쟁탈 경쟁을 가속화 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위기도 찾아 온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문명사적 위기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자구책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중국의 모색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양무운동(洋務運動)에 까지 이르게 된다. 중국의 근본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장점인 군사나 과학기술은 수용해야 한다는 중체서용(中體西用)적 관점에서 진행된 이 운동은 청나라 정부로 하여금 제법 장기간에 걸쳐 유학생을 파견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서양의 군사·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다. 특히 옌푸(嚴復)는 서양 최신 사상들을 담은 다양한 서적들을 번역해 중국에 전파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의 『진화와 윤리, Evolution & Ethics』를 번역한 『천연론(天演論)』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당시 중국인들이 근대적 민족주의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회진화론'을 소개한 책이다. 19세기 유럽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시간이 지나 과학적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권위를 얻게 되었는데, 이는 이후 생물학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이 진화론의 주요 내용을 인간 사회에 접목시킨 것이 사회진화론이다. 이것은 한 사회-특히 민족-가 생물학에서의 한 종(種)이나 개체처럼 서로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진화한다는 학설로 약육강식·적자생존 등의 생물학적 가설을 한 민족에 적용을 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학설의 전파는 서구

열강들에 둘러싸여 국망(國亡)의 위기를 실감하던 중국인들에게 대단한 자극이 되었다. 중국인들의 각성을 위해 옌푸는 헉슬리의 주장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고 오히려 헉슬리가 이 책을 통해 비판하고자 했던 스펜서(H. Spencer)의 주장에 힘을 실어 이 책을 번역했다. 왜냐하면 스펜서는 생물 진화의 원리를 인간 사회의 도덕적 원리에 까지 적용을 시켰는데 헉슬리는 오히려 인간 사회의 도덕적 원리가 생물 진화의 원리를 극복하려는 투쟁이 사회의 진보를 가져 온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옌푸가 보기에 헉슬리의 이러한 생각은 중국인들이 스스로 처한 위기 상황을 각성하는데 충분하지 못했고 오히려 스펜서의 냉혹한 이론이 국제 사회의 경쟁 원리인 강권(強權)을 강조하기에 유리했던 것이다(조정란 2003, 38).

옌푸는 중국이 위기로부터 벗어나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의 구성원들이 강하게 결속해야 된다고 믿었고 따라서 강력한 군주에 의해 군대처럼 조직된 국가를 구상했다. 량치차오(梁啟超)는 오히려 옌푸보다 조금 더 강권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였다. 즉 중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 내의 모든 구성원들 즉 중화민족 전체를 강압적으로라도 결합시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1899년 발표한 『동적월단(東籟月旦)』에서 국민, 공민, 인민 등의 개념으로 범민족적 국가 민족주의를 강조했는데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중국에 최초로 도입했다(한주희 2012, 151). 량치차오는 스승이었던 kang유웨이(康有爲)와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는데 이는 앞서 소개한 평요우란의 진술처럼 여전히 중화 문화의 계승자로 만주족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후 장빙린(章炳麟)은 역시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이나 그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청나라를 뒤집어엎는 혁명을 주장했고 량치차오가 부패한 청나라 정부를 옹호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루쉰(魯迅) 역시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이나 군주나 향신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중국민중을 계몽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옌푸에 의해 소개된 사회진화론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사회진화론에 의거하면 근대화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중국이 서구 열강이나 일본에 의해 침탈당하는 것이 정당화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진화론의 경쟁논리에 지친 수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무정부주의를 신봉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무정부주의의 사조 중에서도 크로포트킨(Pyotr Alekseevich Kropotkin)의 '상호부조론'이 특별히 환영받은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예컨대 나중에 중국공산당 창당의 산파 역할을 하는 리다자오(李大鈞)의 경우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장빙린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비판하는데 그는 '보편적 심리'의 결속에 주목하여 진화의 길은 약육강식의 경쟁이 아니라 피압박자의

호조(互助)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조경란 2003, 81).

사회진화론을 통해 민족과 민족국가의 개념을 정립한 중국인들은 서구의 침략에 무기력했던 원인을 스스로의 전통에서 찾았고 이는 신문화운동시기에 대규모로 전반서화(全盤西化)를 주장하는 원인이 된다. 전통이 부정되고 비판 받으면서 앞서 살펴봤던 전통적인 중화사상은 일시적으로 힘을 잃게 된다.

전통적인 중화사상이 현대 중화민족주의에 녹아들어 자긍심의 바탕이 된다면 이 시기에 형성된 근대적 민족주의는 열등감과 위기감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성과 해원의식(解冤意識)의 바탕이 된다.

3. 쑨원(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 사상에 나타난 중화민족주의

신해혁명을 이끌어 중국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쑨원의 핵심 사상은 삼민주의로 개괄될 수 있다. 쑨원은 2000년 넘게 지속된 황제제도가 사라진 새로운 공화국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사상으로 민족주의·민권주의·민생주의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민족주의를 가장 앞에 두고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들을 바로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상징한다. 삼민주의는 쑨원이 일찍이 1905년에 『민보(民報)』를 통해 제기한 것이고 이때부터 ‘민족’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삼민주의는 신해혁명과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복辟(復辟), 새로운 정부의 수립과 군벌들의 배신 등 여러 사건들을 겪고 난 쑨원이 평생 동안 중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기획했던 것들을 종합하여 말년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1924년에 국민당의 청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내용은 역시 『삼민주의』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첫 번째 강연 내용을 보면 쑨원(2000, 16)이 생각하는 민족주의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민족주의란 무엇일까요? 중국 역사상의 사회적 습관 등 여러 상황을 토대로 간단히 말한다면, 민족주의는 바로 국족주의(國族主義)라 하겠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숭배하는 것은 가족주의와 종족주의이므로, 중국에는 오직 가족주의와 종족주의만이 있었지 국족주의란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에 대해 흠여진 모래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국족’이라는 개념이다. 국족은 그가 구상하고 있는 공화국을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하는 것인데, “가족주의와 종족주의만 있었지 국족주의가 없었다”는 대목은 서구의 근대적 민족국가의 시각으로 볼 때 중국인들은 봉건에서 벗어나지 못해

좁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이른바 ‘관시(關係)’를 돈독하게 형성할 뿐이지 근대적인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쑨원은 중국은 진한 시대 이후 언제나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지만, 외국은 하나의 민족이 여러 개의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의 국가 내에 여러 민족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국족주의를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쑨원 2000, 17) 여기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도 문화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이 강조된 것이지 한족(漢族)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쑨원의 초기 민족주의 사상은 만주족이라는 무능하고 부패한 이민족 정권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었지만, 신해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는 멸만흥한(滅滿興漢)이라는 말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오히려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내에 있는 제 민족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신해혁명 직후 쑨원은 ‘오족공화(五族共和)’를 내세웠는데 이는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티벳족 5개 민족이 협력하여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1924년 강연에서 모든 약소민족까지 포함한 새로운 중화민족주의를 구상하게 된다. 쑨원은 “첫째, 중국의 각 민족은 스스로 해방을 쟁취해야하고 둘째, 중국 내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해야한다.”(孫文 1981, 591) 라고 하면서 약소민족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땅히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후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고 나서도 소수민족 우대정책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쓰이듯이 한족뿐만 아니라 55개의 소수민족이 모두 포함되는 중화민족의 개념은 쑨원이 정립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4. 마오쩌둥(毛澤東)의 민족해방 사상

현대 중화민족주의의 사상적 연원에 있어 마지막으로 언급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마오쩌둥의 민족해방 사상이다. 쑨원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중국 내의 모든 민족을 새로운 공화국의 구성원들로 묶어서 외세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고 미국식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봉건적 구질서에서 완전히 탈피하려고 시도 했다면 마오쩌둥은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인 중국에서 중국 나름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완성할 주체로 중화민족을 사고하였다.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각종 사회주의 이론과 사상에서 민족이 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계급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와 계급이 소멸되는 공산주의를 인류의 최종적인 이상사회로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는 원론적으로 그것이 민족주의이건 국가주의이건 상관없이 모든 내셔널리즘(nationalism)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민족에다가 ‘해방’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일종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생산했다. 그는 당시 중국이 처해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식민지나 식민지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으로 고찰했고 이를 통해 민족해방이라는 관점을 최초로 이론화 시켰다. 이후 이러한 민족해방론은 마오사상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로 세계 곳곳의 피압박 민족과 그들의 혁명 지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쿠바 혁명을 이끈 체 게바라(Che Guevara)와 베트남 민족해방을 이끈 호치민(胡志明)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어쩌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빠지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첫째, 중국의 선진적인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라기 보다는 위기에 빠진 중국을 구해내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애초에 마르크스주의를 ‘계급적’ 견지에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애국적 목적에 의해 수용한 것이다.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천두슈(陳獨秀)조차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을 위기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 혁명 직전까지도 마르크스주의가 매우 고매한 사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17년 유럽의 낙후된 농업국가였던 러시아에서 봉건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후 이 사상은 고매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중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둘째는 당시 코민테른을 비롯한 국제공산주의 운동 지도부가 민족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세계 제1차대전과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도 자본주의 국가들은 마르크스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 스스로의 한계로 인해 종말을 고하지는 않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오히려 위축되는 등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다. 이로 인해 1919년과 1920년경에 레닌을 비롯한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은 세계 혁명과정에서 식민지와 반식민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해방 운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자본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들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국가들이 끊임없이 수탈당하면서 수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각 식민지와 반식민지 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이 성공하여 이러한 수탈 구조가 깨져야만 비로소 제국주의 자본이 힘을 잃게 되어 세계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1920년 4월에 코민테른은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리다자오 천두슈 등 급진적 지식인과 접촉하여 중국공산당 창당을 적극 권유하였다(서진영 1992, 86). 이 무렵의 코민테른의 민족해방에 대한 입장은 레닌의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에 근거하고 있다. 레닌은 피압박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은 코민테른에 의해 적극 지원되어야 하고 나아가 민족해방운동이 부르주아계급에 의해 주도 되더라도 해당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적극 참여하고 일시적인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봉래 2009, 239). 바로 이런 입장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창당 직후 쑨원이 이끌던 국민당과 제 1차 국공합작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1925년 3월 국공합작을 이끌었던 쑨원이 사망한 후에 그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고, 1927년 반공주의자였던 장제스(蔣介石)가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로써 국공합작이 와해되고 만다.

이 직후 중국공산당과 중국내 몇몇 사회주의자 그룹들이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까지 중국사회성격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도 중국공산당이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이 논쟁의 결과 중국사회가 여전히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리쩌허우 2005, 136). 이는 혁명정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의 당면 임무가 반자본주의적 계급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투쟁에 있다는 것이고 외세에 대항한 민족해방운동이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는 바로 ‘중화민족’이다. 마오쩌둥은 중일전쟁 시기에 중국이 안고 있는 모순을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으로 나누고 당시의 주요 모순은 민족모순이라고 주장하며 제 2차 국공합작을 이끌어 냈다. 중국공산당과 홍군은 국민당정권이 철수한 힘의 공백지대에서 중국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거의 유일한 항일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여기서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포괄하는 근거지 또는 해방구를 건설할 수 있었다(서진영 1992, 193).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있어 민족해방 사상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Ⅲ. 시진핑 시대의 중화민족주의 강화의 원인과 그 의미

지금까지 선진 시기부터 형성된 중화사상에서 출발하여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 쑨원의 삼민주의와 마오쩌둥의 민족해방 사상까지 현재의 중화민족주의에 영향을 준 사상적 연원들을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 총 망라하여 살펴보았다.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조건 속에서 형성된 연원들이 복잡하게 섞여서 현재 중국의 민족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상적 연원들을 바탕으로 하여 시진핑 정부는 왜 중화민족주의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떤 학자들은 1949년 건국 이후, 사회주의 중국에서 민족주의는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국공산당이 종족이나 민족이 아니라 계급을 통해 정치적 정체성을 결정했으며, 민족이나 종족의 정당이 아니라 계급정당으로 자신을 규정했기 때문이다(조형진 외 2016, 107).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공산당이 대내외적으로 드러내어 놓고 민족주의를 주창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중화민족이라는 말은 1949년 이후에도 여전히 혁명과 사회주의 발전의 주체로 자주 사용 되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후에도 중국은 대외적으로 냉전이라는 국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생산력 발전의 주체로서 인민들의 역량을 집결시키기 위해 종종 민족주의를 이용했고 이를 고취시킨 측면이 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불리한 조건에서 국민당과의 경쟁에서의 승리와 건국 초 사회주의 개조 시기에서 생산 목표의 초과 달성 등에 크게 고무되어 스스로가 중화민족의 위대함에 빠져들었다. 중화민족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지나치게 과신했던 마오쩌둥은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낙후된 생산력을 대규모 군중운동을 통해 극복하려는 극좌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1957년 대약진운동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될 때 까지 중국을 비극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1. 개혁개방의 모순과 중국사회의 분열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의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음으로써 중국에는 거대한 개혁개방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빈곤이 사회주의는 아니다”라는 덩샤오핑의 기치아래 ‘생산력 발전’을 지상목표로 두고 경제성장에 매진했고, 그 결과 중국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79년부터 시진핑 집권 직전인 2012년까지 중국의 GDP의 연 평균 성장률은 무려 9.8%나 된다(유신일 2014, 26). 그러나 이러한 압축적인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개혁개방 초기에 미처 살피지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모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빈부격차다. 이 빈부 격차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득 불균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고 이 문제는 서장(西藏) 티벳 자치구나 신강(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급속한 확산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문제, 개발 지상주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에너지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꼽는다면 과거 중화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일종의 사회통합적 이념이나 사상이 실종되면서 사회공동체를 관통하는 전반적인 가치체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점이다. 이 사회공동체의 사상이 바로 중화민족을 하나로 묶는 결쇠 역할을

해 왔는데 이 사회의 중심사상이 흔들리면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심리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는 배금주의와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 불감증을 낳았고 기존의 관료주의에 더해져 각종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범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회공동체를 붙잡아 주는 중심사상의 효용과 중요성 대해서 쑨룽치(孫隆基 1997, 29)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인은 ‘지성’과 ‘감정’을 하나로 잇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경향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공동체와 화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제일의 표준으로 삼아 어떠한 사조(思潮)의 가치를 판단하여 그 사상의 인지가치(認知價值)를 도리어 그 다음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인이 ‘인심(人心)’을 중시하고 ‘기이하고 정교한 것(奇技淫巧)’을 멸시하는 경향을 만들어 냈다. 확실히, 선진 제자백가의 대부분은 ‘사회공동체(communitiy)의 학문’이며 ‘명가(名家)와 같은 학파는 다만 맨 끝자리나 차지할 수 있었고, 또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2천여 년 동안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 온 유가는 바로 ‘민심을 통일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의 학문이었다. 중국에서 유가사상의 파산과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의 유입 이래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은 재빨리 유학과 같은 기능을 가진 사회공동체의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확실히 중국은 공동체의 중심사상이 약화 되었을 때 큰 혼란을 겪었다. 춘추전국이라는 500여년의 혼란기도 주(周)나라의 질서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이로 인해 큰 혼란(大亂)이 야기되었다고 믿었다. 따라서 큰 혼란을 극복하고 ‘크게 잘 다스리기(大治)’ 위해서는 통일된 사상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믿어 왔다. 그래서 진(秦)이 최초로 통일을 때 이사(李斯)는 진시황을 부추겨 법가 이외의 학문은 모두 불태우고 파묻어 버리는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를 시행하게 했고, 한(漢)이 그 자리를 차지 한 후 동중서(董仲舒)는 한무제에게 유가사상을 유일한 관학(官學)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서가 오래동안 남아 중국인들의 ‘대일통(大一統)’ 경향이 형성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부터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이 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지침이자 지켜야할 규범을 결정짓는 전부였다. 특히 1956년 ‘반우파 투쟁’부터 문화대혁명이 종결될 때 까지 20여 년 동안은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사상에 위배되는 것은 바로 전 사회적인 투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은 더 이상 공동체의 중심사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덩샤오핑은 오히려 ‘사상해방’을 주장했고, 성이 사씨(社氏 사회주의)인지 자씨(資氏 자본주의)인지 묻기 전에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지, 국가의 종합국력 증강에 유리한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유리한지 보아야 한다”(鄧小平 1993, 372)며

시장과 상품 등 자본주의의 경쟁 요소를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개방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은 그 권위가 약화 되었고 사회를 강력하게 이끌어 오던 사회통합적 사상이 힘을 잃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사실상 실천적, 담론적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된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이다. 1989년 천안문사건, 사회주의권의 몰락, 그리고 탈냉전 초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로 인해 체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중국 내에서 1980년대의 낭만적 ‘서구열(追西熱)’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93년 하계올림픽 유치 실패, 1995년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으로 야기된 대만해협 위기, 1999년 주유고 중국 대사관 피폭사건, 2001년 미국 정찰기와의 충돌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의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지식인 계층과 정부에서도 민족주의 열기가 고조되었다(이동률 2010, 28).

다시 말해 중국은 민족주의를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실효성의 실패와 소수민족 분리의 움직임에 따른 새로운 대안의 이데올로기로 삼고자 했고 이를 위해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통합을 모색하였다(한주희 2012, 142). ‘애국주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행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진행한 국민교육이자 중국민 사이에 고양된 국민 이데올로기였다(김희교 2006, 305).

이 애국주의 캠페인은 현재의 중화민족주의가 강화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 이후로 중국인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국민들 스스로에 의해 대외 갈등이 격화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1999년 미군의 유고슬라비아의 중국 대사관 오폭은 미국 측의 발빠른 사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반미시위를 불러 일으켰고, 일본과의 조어도(釣魚島)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나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도 어김없이 대규모 군중시위로 연결 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티벳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제기한 프랑크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화봉송 과정에서 서울에서도 대규모의 중국 유학생들이 인권단체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 경찰과 충돌한 일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으나 중국의 젊은 세대에 의해 표출된 대단히 공격적인 애국주의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우려를 안겨주었다.

2. 중국몽과 중화민족주의의 강화

시진핑 이전부터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자신을 상징하는 사상·이론을 제시했다.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의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理論)’,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 등이 그것이다. 앞의 지도자들과

뉘앙스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시진핑이 집권 초기부터 중요한 지도사상과 집정이념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중국몽’이다. 시진핑은 17기 6차 전체회의 직후인 2012년 11월 29일 국가박물관에서 개최된 〈부흥의 길(復興之路)〉이라는 전시회를 참관했는데, 참관을 마친 후 그는 “매 사람마다 이상과 추구가 있고 꿈이 있다. 현재 여러분은 모두 중국의 꿈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근대 이래로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다.”(人民日報 2012/11/30) 라면서 중국몽에 대해서 최초로 정식 언급을 했고, 시진핑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2013년 3월의 양회(兩會) 폐막 연설에서는 ‘중국몽’이라는 단어를 아홉 차례나 반복했다. 중국몽의 내용은 ‘13억 4천만 인민의 개인적 꿈의 결집체’로서 모든 개인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으니 개인이 노력하기만 하면 국가는 정책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김태만 2013, 5). 다시 말해서 모든 인민은 꿈을 추구하고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중국몽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야 하며 인민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공산당이 분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다. 여기서 ‘13억 4천만 인민’ 즉 ‘모든 인민’이 바로 중화민족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중국몽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편전쟁 이래 반제·반봉건 민족민주 투쟁, 공산주의 혁명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거쳐 오늘날 G2에 이르기까지 170년 동안의 지난한 ‘중화민족 부흥’의 열망이 녹아 있다(김태만 2013, 6).° 중국몽의 핵심목표는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의 목표’로 개괄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백년이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차근차근 진행하여 마침내 순조롭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이라고 말하고 그 실현 경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견지하며 민족정신을 드높이고 중국의 역량을 응집시키는 것이고, 정치·경제·문화·사회·생태문명 다섯 가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실현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처럼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워서 당과 인민의 공통의 꿈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중화민족 전체의 공통의 목표를 만들었다. 당의 이론과 노선, 정책 등과 모든 인민의 희망과 요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당의 의견과 정책이 자연스럽게 인민들에게 수용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중국사회 전체의 공동 목표로 인식되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중국몽은 개혁개방 이후 희미해진 중국의 사회통합적 사상이 되어 인민들을 응집하는 기제로 작용하고자 한다. 시진핑 정부의 대표적인 선전구호인 중국몽은 근대 이후 중국인들이 근대 이후 중국인들이 꾸었던 부강한 국가로의 꿈이고 중화민족 전체에서는 부흥의 열망이며 인민 개개인에게는 행복의 소망이기도 하다(劉開法 2015. 30).

시진핑은 단순히 ‘민족의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종종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

的偉大復興)’이라고 표현한다. 이 내용 중에서 국가부강과 민족진흥은 용어자체가 매우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혐의가 충분하다. 심지어 중국은 이 중국몽을 단계화, 대중화시켜 ‘세계의 꿈(世界夢)’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다시 말해 중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중국 스스로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인류의 모든 문화유산을 차용할 것이나, 어떤 국가의 발전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의 상황에 맞는 중국 인민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人民日報 2013/3/20). 이는 중국의 정치개혁에 인권 문제에 있어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내정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중국몽을 실현시켜 반대로 세계가 중국을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중화민족주의는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 과정속에서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 낸 사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단히 크고 복잡하며 외형적으로는 매우 단단한 사상체계이다. 또한 시진핑은 후진타오 시기의 여러 테크노크라트들에 비해서 사상과 이론에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시진핑은 학부과정에서 칭화대학(淸華大學) 인문사회대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사상정치교육(馬克思主義理論與思想政治教育)’을 전공했다고 한다(유신일 2014, 24). 이후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될 시진핑은 중국몽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민군중을 결집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사회공동체의 중심사상으로 중화민족주의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거니와 중국은 현재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의 기회도 열려 있지만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최근 시진핑이나 시진핑 정부와 관련한 중국의 자료를 읽다보면 ‘새로운 형세에서(新形勢下)’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 ‘새로운 형세’는 어떤 형세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95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경험해보지 못한 형세이다. 생산력의 초고속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얻게 된 경제 강국으로서의 지위,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인민들의 물질생활도 새로운 형세에 포함 되겠지만,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실패로 인한 극심한 사회 양극화, 환경·에너지 문제, 노동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이로 인한 중국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 등이 새로운 형세 중 심각한 부분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부정적인 조건은 최근에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이미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장쩌민 집권시기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쩌민 시대의 ‘삼개대표론’이나 후진타오 시대의 ‘과학발전론’ 같은 집정이념이 등장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해법이 필요했고 이러한 형세에서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우며 인민군중의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을 한껏 강조하였고, 부강한 국가 민족의 진흥 등을 포함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세워서 중국 사회공동체의 새로운 응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초기의 강력한 반부패활동 역시 중국공산당과 중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 일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겠지만 더 큰 목표는 이를 통해 민심을 획득하고 자신과 자신의 정부를 중심으로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대내적인 목적이 대외관계에서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일본과의 군사적 공조,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등이 모두 얽혀 있어 이번에 사드를 둘러싼 갈등처럼 언제든 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주시해야만 한다.

건국 이후 중국이 줄곧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공존 5항이다. 이것은 주권과 영토에 대한 상호 존중(互相尊重主權和領土完整), 상호 불가침(互不侵犯), 상호 내정 불간섭(互不干涉內政), 평등한 이익도모(平等互利), 평화공존(和平共處) 등 다섯 가지를 말한다. 2014년에 시진핑 역시 베이징에서 열린 평화공존 5항원칙 6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이 여전히 이것을 대외관계의 원칙으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그렇지만 시진핑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강군정책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어도(釣魚島)를 둘러싸고 일본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재 점화 될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갈등에 우리에게 외교적·군사적으로 영향력이 큰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중 간의 갈등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중국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감정적이다. 또한 상대방을 친미·친중파로 몰아세우며 소모적인 이념 대립마저 나타난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이념적으로 훨씬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 모르나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고 보았을 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통적으로는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근대 편입 이후로는 서구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동화 일변도의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안외순 2004, 99). 이번에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대응이나 국내의 여론은 매우 미숙해 보인다. 이는 안외순

(2004, 99)의 주장대로 동화 일변도의 태도로 인해 중화주의나 서구중심주의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여 주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잠재적 능력을 상실해 온 결과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중화민족주의는 중국 국내의 모순에 의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고 적절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내면화 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孫文. 1981. 孫中山全集. 人民出版社.
-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 第3卷. 人民出版社..
- 馮友蘭. 1985. 中國哲學簡史. 北京大學出版社.
- 孫隆基, 박병석 역. 1997. 중국문화의 심층구조. 敎文社.
- 리찌허우, 김형중 역. 2005.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 안쏘니 기든스, 진덕규 역. 1991.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 조경란. 2003. 중국 근현대 사상의 탐색-강유웨이에서 덩샤오핑까지. 삼인.
- 쉰원, 김승일(외) 역. 2000. 삼민주의. 범우사.
- 서진영. 1992. 중국혁명사. 한올아카데미.
- 김태만. 2013.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문화연구 37, 5-31.
- 김태만. 2015. 시진핑(習近平)의 문화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문화전략. 동북아 문화연구 44, 19-39.
- 조봉래. 2009. 중국식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철학논집 27, 223-254.
- 조봉래. 2011. 현대 중화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본질. 중국학보 64, 517-536.
- 안외순. 2004. 중화주의의 형성원리와 특성. 오늘의 동양사상 11, 84-101.
- 김희교. 2006.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2006 봄, 305-311.
- 한주희. 2012. 중국 민족주의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한국 민족주의의 방향성 모색. 민족사상 6(3), 139-168.
- 조형진 · 이선우. 2016.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주의 정책 비교: 탈정치화와 재정체화의 동학. 다문화사회연구 9(1), 97-126.
- 劉開法. 2015. 習近平的人民觀研究. 前沿 382, 26-30.
- 유신일. 2014. 시진핑 노선과 그 의미. 한국동북아논총 72, 23-48.
- 이동률. 2010. 중화민족주의, 중국 부상의 이데올로기인가? 중화민족주의 부흥의 배경, 의도 그리고 과제. 지식의 지평 9, 24-41.
- 인민일보

● 투고일: 2017. 08. 01. ● 심사일: 2017. 08. 01. ● 게재확정일: 2017. 08. 15.

〈中文提要〉

从思想和历史渊源角度上看的现代中华民族主义强化和其意义

赵奉来 (仁川大学)

最近韩中之间围绕部署萨德的矛盾正不断加深。在这种情况下习近平政府的中华民族主义逐步增强。从思想和历史角度上来看现代中华民族主义有几个方面的渊源。第一, 中华思想-中国传统的一种文化优越感基础上的民族观念, 这跟其他文明圈的宗族主义有不同的内容。第二, 近代时期随着吸纳西方文明形成的近代性民族主义观念。1840年发生鸦片战争以后, 中国的危机让中国的知识分子探索‘救亡之路’。虽然他们试图几次的改革, 但中国的情况没有好转。最终, 他们依靠西方的思想和体制, 要突破中国的危机。严复介绍了‘社会进化论’, 而中国的先进知识分子自觉了世界竞争的情况下中国的现实。‘社会进化论’广泛的转播之后, 近代性的民族观念发生了。第三, 孙文的‘三民主义’。中国的近代民族观念经历了一个较长时期的形成和发展过程。第一个重要阶段应该说是辛亥革命过程。辛亥革命当时, 孙文的主要目的是‘灭满兴汉’, 所以当时的中华民族的概念有界限的。辛亥革命之后, 中国还有西方资本帝国主义的严重的障碍。因此, 孙文的中华民族的范畴夸张了, 孙文在自己的‘三民主义’思想强调了包括少数民族的民族主义, 这就促进了中华民族的民族意识的发展。第四, 毛泽东的民族解放思想。毛泽东也继承和发展上述的近代民族观念, 他认为中华民族就是中国新民主主义革命的主体。经过抗日战争, 他的‘民族解放思想’是在中国革命过程中做了巨大的作用。

改革开放以来, 中华民族成为了国家发展的动力和主体。虽然中国的经济发展的速度非常快, 中国的整个生产力很发展, 中国的国际地位也提高了, 但是这种新的局面下发生了新的矛盾。比如说, 地域及个人的经济两极化, 犯罪率的增加, 道德观念的下落等等。新的矛盾带来了新的危机, 中国政府以强调爱国主义把中国人民一致团决从而解决新的矛盾。中国共产党第十八届全国代表大会以来, 习近平提出了的重要指导思想和重要执政理念, 就是‘中国梦’。习近平把‘中国梦’定义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 就是中华民族近代以来最伟大梦想”。

关键词: 中华思想, 民族主义, 习近平, 中国梦, 中国共产党

Reinforcement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 Its Ideological Origin & the Stream of Times

Cho Bongla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dispute over the placement of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let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 worsen. And what's more , President Xi Jinpi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strengthen the Chinese Nationalism. The Chinese Nationalism has its several ideological origin and it changed with the times. The first is the traditional Sinocentrism, which based on cultural superiority complex. It refers to the historical ideology that China is the cultural center of the world. The second is "modern Chinese nationalism" that imported from the West. The Darwinian evolutionism introduced in China in 1890s had a great intellectual impact on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 The third origin is "the three-peoples principles" of Sun Wen. After Xinhai Revolution, Sun Wen emphasized the Chinese nationalism that include all minority race. Sun Wen pioneered the "modern Chinese nationalism" concept. The fourth origin is the "thought of the national liberation" of Mao Zedong. He inherited and developed modern Chinese nationalism. He judged that every Chinese nation is must be an agent of "the New Democratic Revolution". After Anti Japanese War, his "thought of the national liberation" played a major role in Chinese revolution.

After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Chinese nation is be a power and an agent of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is time, Chinese productive capacity advanced quickly. But also China met with a new difficulty. Chinese government groomed the "Patriotism" to solve a new problem. President Xi Jinping presented strategic planning objective which called "Chinese Dream" at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hinese Dream is about Chinese prosperity, collective effort, socialism, and national glory.

<Key words> Sinocentrism, Nationalism, Xi Jinping, Chinese Dream, Communist Party of China